



대전MBC 사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본사는 있고 지역사는 없다

작년 본사 사장 선임 과정을 바라보는 지역사 구성원들은 참 부러웠다. 사장 후보들이 저마다 경영계획을 발표하며 꿈같은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번 지역사 사장 공모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대결하고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 없다.

지역성 구현할 책임자가 필요하다.

박사장의 경영계획서에서 밝히는 지역사 및 자회사와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보면 One-MBC를 말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할 뿐 지역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지역성을 말하면 일부 지역사회의 반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지역사 사장이 된다는 말인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작년 초부터 박성제 사장은 세종MBC를 언급해왔고 중부권 최대 mbc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화 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전MBC를 사랑해준 지역민과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세종MBC 논의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비전 갖고 조직을 혁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 3년짜리 경영계획이 아닌, 10년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경영계획을 만들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격언에 따라 프로그램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혁신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원한다.

기억하는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의 탄압에서 MBC를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도 줄곧 고통을 나눴었다. 또한 2017년 파업 때 김장경, 이진숙을 몰아내는데 선봉장을 자처하며 파업 승리를 견인했다. 박성제 사장과 임추위는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자 말라

2021년 1월 22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